

북한 김정은 시대 인간상과 부패 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uman Image and Corruption Suppression in the North Korean Kim Jong-un Era

백인주(Baek, In Joo)** · 정유석(Jung, Yoo Suk)*** · 정대진(Jung, Dae J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responds to the corruption problem prevalent in society.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approach to the corruption problem by paying attention to the newly presented human type in the Kim Jong-un era. What is unique about the presentation of the human 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human form presented to the people's public and party executives. While the people are trying to curb the corruption issue by emphasizing morality like the Chinese Leifeng type, party officials are emphasizing the role of dedication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s by presenting the Soviet Stahanov typ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ual form of human form presentation in the Kim Jong-un era have been unfold. One is aimed at suppressing corruption by providing incentives to the North Korean power elite to gain interest by providing loyalty to Kim Jong-un and compensation through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for the people's public, they try to suppress corruption that is prevalent in everyday life by cultivating the moral character of everyday lif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egree of corruption in North Korea's bribery economy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st human figures to determine whether the presentation of human figures in the Kim Jong-un era is effectively working to curb corruption in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Corruption, North Korean humanoid, Kim Jong-un era humanoid, North Korean corruption response

* 이 논문은 2021년 통일부 “북한의 집단주의 강조 동향과 김정은시대 인간상” 연구용역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제1저자: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통일학박사

*** 공동저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학박사

**** 교신저자: 한라대학교 교수, 통일학박사

I. 서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과제에 대응하며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김정은 체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부패 문제는 북한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과제에 속한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행정시스템과 사회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북한 인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영역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은 부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고 이를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여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처벌을 통한 강경한 방식만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민과 당간부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인민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간형 제시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체제안정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북한 역시 인간형 제시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목적과 동시에 인민과 당간부의 충성심을 고양시켜 체제안정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인간형을 통해서 인민 내면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여 개인의 부패 문제를 유화적 방식으로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인간형에 주목하여 북한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유화적 접근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북한의 뇌물경제의 현황과 부패정도를 분석하고 김정은 시대 인간형의 특징을 소련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북한 인간형 제시가 부패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소련, 중국과 북한의 인간형 비교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구조화된 부패 문제이다.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서 구조화된 부패를 억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부패문제를 처벌을 통한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동시에 도덕적 성품을 함양한 인간형 제시를 통해서 유화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사용했던 인간형을 참고하여 북한식 인간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만연한 부패 문제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권의 인간형은 생산성 향상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의 내면화 등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충성심의 내면화,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 이외에도 도덕적 성품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1. 공산주의 인간형의 출현

인류는 17~18세기를 지나면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점차 ‘인간’ 중심의 사고로 생각을 전환하였다. 이후 세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 10월 혁명(1917)과 제1차 세계대전(1918)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간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간 ‘개조(remaking)’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¹⁾ 이시기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과 인간과 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사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간개조의 철학적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5.18.~1970.2.2.)이었다. 러셀은 1916년 ‘사회개조의 원리(Principles of Social Reconstruction)’를 출간하면서 사회와 인간개조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대전환 가운데 공산주의 이론가 마르크스도 계몽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인간 진보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개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인식하면서 “단지 군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회 한 가운데에서만 자신을 개별화(individuate)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²⁾ 즉,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인간으로 구분하여 생각했는데, 인간은 구조에 종속되어 있어 구조가 변하면 인간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마르크스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소유를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계급갈등이 종식되는 동시에 생산력 증진이 촉진 될 것으로 보았다.³⁾

1)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no.53, 2014, 151면.

2) 박주원, “소유적 개인의 인간관을 넘어서: 마르크스 사상에서 ‘사회적 개인성’ 개념에 대한 연구”, 현상과 인식, vol.41, no.4, 2017, 75면.

3) 김병연,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인간”, 시장경제연구, vol.33, no.2, 2004, 7면.

이론에 머물러 있던 공산주의는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거대한 실험장이 된 소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주조하기 위한 공산주의 인간형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실현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소련과 중국의 현실은 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의식이 부족한 농민과 소상공인 등을 인간개조로 계급의식을 고양시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군중노선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군중(crowd)이란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특성을 갖는 다수의 사람들로 익명성, 일시성, 무책임성, 선동가능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⁴⁾ 소련과 구동구권 및 중국, 북한 등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 때문에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지식인, 농민, 소상공인 등 군중으로 불리는 집단을 사회주의 사상교육과 혁명적 열의를 갖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으로 주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회주의 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인간개조와 인간형 제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인간형

1) 소련의 공산주의 인간형

소련에서 공산주의 인간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였다. 소련은 노동 자체를 인간개조의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공산주의 하에서 노동이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소련에서 모델로 제시한 대표적인 공산주의 인간형은 ‘스타하노프’였다. 당시 소련은 대중운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주의 체제의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스타하노프라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스타하노프운동은 1927년 소련 돈바스지방의 탄광 노동자로 일하던 스타하노프(A. G. Stahanov)가 자신의 생산할당량의 16배나 초과달성을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소련은 스타하노프를 증산사례에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하면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생산할당량 초과달성에 대해서 특별보상금을 지불하는 등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련은 스타하노프를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4)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북한학보, vol.2, 1978, 12-13면.

스타하노프운동은 생산력 증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이 등장한 시기는 소련이 제2차 5개년계획(1933~1937년)을 추진하는 시기였다. 소련은 새로운 자본의 투여 없이도 노동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소련은 스타하노프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려 노동자의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하노프 이외에도 칼마르크스 광산의 테레히이 119톤의 석탄을 채굴한 이야기와 콘체달로프가 125톤의 석탄을 채굴한 사례들⁵⁾이 적극적으로 선전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한 스타하노프운동은 점차 쿠즈바스, 바쿠, 스페르틀로프스크, 카프카즈의 광산과 공장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에는 전 연방 노조 중앙평의회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11월 중순에서는 '제1차 전 연방 스타하노프 남성 및 여성 운동원 대회'가 개최되는 등 소련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스탈린은 스타하노프운동을 경제구조 조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운동은 생산과정에서 노동 생산성을 자극하는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경쟁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자들, 상점들, 기업들, 집단농장들 사이의 경쟁 정신을 통합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주의 경쟁정신을 일으키는(И. В. Невзорова, 2019: 142)⁶⁾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타하노프운동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스타하노프운동원들의 '급료', '성과급', '상여급' 등 얼마를 받았는가가 부각되었다. 또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소득과 상금으로 구입한 소비재와 생활용품들이 자랑스럽게 열거되기도 하였다.

스타하노프운동이 확산되면서 소련 전역에서 기록열풍이 일어났다. 1935년 12월 한달 동안 중공업부문에 달성된 기록만 해도 책으로 두 권이 넘을 정도였다. 이러한 확산 속에 스타하노프운동원들도 급격히 증가하여 1938년 7월 기준 전러시아연맹 노동자들 중 29%가 스타하노프운동원으로 명명되었고, 1939년에는 34%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⁷⁾

소련은 스타하노프운동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다. 1936년 1~5월과 1935년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철강, 화학, 기계, 제조에서 증산효과가 나타났다. 한 예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공업 부분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⁸⁾

5)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서양사론, no.100, 2009, 225-228면.

6) И. В. Невзорова, ВЕСТНИК ОРЕН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19, no.4 (32).

7)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 변질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89면.

8) 김보근, 위의 논문, 90면.

스탈린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소련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업적에 따라 사회적 이동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스타하노프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업적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И. В. Невзорова, 2019: 146).⁹⁾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의 집단적 성공을 강조했던 1차 5개년 계획과는 달리, 경쟁을 통한 개인의 성과가 부각 되었다. 즉, 돈과 돈을 버는 능력이 노동과 생활 조건 개선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ГридинаЯВ, Кра,вцо,ваЕС 2018: 6).¹⁰⁾

스타하노프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은 소련의 ‘새로운 영웅’ 찾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소련 중공업인민위원회 의장이었던 오르조니키제(Ordzhonikidze)는 “새로운 인물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¹¹⁾ 즉, 스타하노프운동은 국가주도의 새로운 모델 찾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소련은 이러한 새로운 인간형 제시를 통해서 노동자의 생산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은 생산력 증산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단기간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스타하노프운동원과 비운동원의 마찰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고, 운동도 빠르게 식어가면서 단기간에 종료되었다. 이는 소련의 사회주의 정신과 결이 다른 인센티브 방식을 추구했던 스타하노프운동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였다.

2) 중국의 공산주의 인간형

중국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건설 시기 레이펑(雷鋒, 1940.12.18.~1962.8.15)이라는 인물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인간형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레이펑은 1963년 3월 5일 마오쩌둥이 “레이펑으로부터 배우자”는 구호를 제시하면서부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선전과 인민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3월 5일은 “레이펑의 날” 혹은 “레이펑학습기념일”로 기념될 정도로 특정한 개인을 기억하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레이펑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레이펑은 1940년에 후난(湖南)성 왕청(望城)에서 태어나 7살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부모가 없었던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고달팠지만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학교에 다닐 수

9) И. В. Невзорова, ВЕСТНИК ОРЕН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19, no.4 (32).

10) Гридина Я.В., Кравцова Е.С. Стахан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СССР глазами очевидцев // Innova. - 2018. - No. 2 (12) - С. 6-7면.

11) 김보근, 위의 논문, 89면.

있게 되었고, 비교적으로 사회에서 순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레이펑은 1954년 중국의 소년선봉대에 입단하고, 1960년 중국 인민해방군에 참가하여 같은 해 11월에는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레이펑은 군입대 후 8월 상사댐 재해복구에 참가하여 7박 7일간 활약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 위원회는 레이펑에 이등 공로를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 절약한 100위안을 푸순시 왕화구 인민공사와 랴오양수이 재해지역에 각각 지원해 부대로부터 표창을 받고 절약의 표병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레이펑 이야기는 1963년 마오쩌둥이 구세대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들에게 ‘레이펑 동지를 본받으라’고 호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레이펑의 행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인들에게 레이펑의 이름이 각인되면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레이펑은 모범적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레이펑 정신의 핵심은 인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집단을 위한 봉사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집단주의적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다.¹²⁾

레이펑 인간형이 제시되었던 시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는 새로운 개개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레이펑을 사회주의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특히, 레이펑은 마오쩌둥의 이상주의를 열렬히 신봉했던 인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 이전부터 레이펑을 군인과 학생들 사상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레이펑 학습운동이 학교와 군대에서 확산되면서 문화대혁명과 더불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레이펑 학습운동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레이펑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레이펑처럼 일기를 쓰고 동료들과 일기를 돌려 읽으며 서로 지적해 주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 몰래 빨래를 빨거나, 옷을 기워주고, 청소를 해 주는 일들이 유행했다. 그러나 종종은 운동이 변질되어 보여 주기식으로 일기를 쓰거나, 잘사는 집의 아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와 옷을 바꿔 입는 일도 일어났다.¹³⁾

중국에서 레이펑이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제시되었던 이유를 주장취안(朱小娟)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레이펑은 당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숭고한 이상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레이펑은 “당의 말을 듣고 명령에 복종하며 지휘를 받들어 당이 지향하는 곳까지 돌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목숨으로 희생하겠다”고 다짐한다. 레이펑은 당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충성, 공산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둘째로 국민을 섬기고 남을 돕는 봉사정신이다. 레이펑은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동지의 쾌락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펑 정신은 국가와 집단을 위한 봉사정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레이펑정신 확산이 인민들의 사회봉사, 집단봉사, 남을 돕는 가치, 도덕성, 행동습관 등을 함양하고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형

12) 朱小娟, 从雷锋精神弘扬谈集体主义价值观的重塑. 北京教育(德育), 2016, 11면.

13) 양한순, 2012, 40면.

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¹⁴⁾

중국은 레이펑 학습운동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레이펑정신은 레이펑 배우기, 실천 활동의 일상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나갔다. 레이펑정신은 시대가 지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적극적인 홍보로 마침내 대중화를 이루었다. 중국은 레이펑운동을 통해서 인민들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¹⁵⁾

3. 북한 인간형의 특징

1) 북한의 인간에 관한 개념들

북한에는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있다. 북한은 인간에 관한 주요 개념으로 ‘인간에 대한 견해’, ‘인간문제’, ‘인간개조’, ‘인간해방’, ‘인간중심주의’, ‘인간철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는 ‘인간에 대한 견해’를 “사람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철학적 견해”¹⁶⁾로 규정한다. 또한 “사람이 세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철학의 사명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데 있으며 인간에 대한 견해는 철학적 세계관을 세우는 사람 자신에 대한 견해”라고 말한다.¹⁷⁾

북한은 ‘인간문제’를 철학적 사유 주체인 사람에 관한 문제로 정의한다. 북한에서는 인간을 세계와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중심에 놓고 분석한다. 즉, 북한은 사람의 활동과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을 ‘인간문제’의 출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간문제’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1974년 ‘당리론선전 일군들과 한 담화’¹⁸⁾에서부터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철학의 본래 명제인 사명을 배제하고 인간과 인생을 논하는 것은 하나의 인생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자신이 제시한 주체사상이 여타 인생철학과는 다른 인간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인간문제’를 세계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규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지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가 바라본 인간문제와 관점의 차이를 갖는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나타난 인간은 사회관계에서 조건과 제약을 받는 존재인 반

14) 朱小娟, 从雷锋精神的弘扬谈集体主义价值观的重塑. 北京教育(德育), 2016, 11면.

15) 2014年03月09日 09:07 来源: 解放军报 编辑: 张学洋分享 打印 “弘扬雷锋精神 培育社会主义核心价值观”

16)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35면.

17) 철학사전, 536면.

18) 김정일,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면,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이 사회관계를 지배하고 개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에서는 역사의 발전이 인간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학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북한은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집단주의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한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양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주체사상에서는 이를 ‘인간개조’로 다룬다.

북한은 ‘인간개조’에 대해서 철학사전에서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 사업”¹⁹⁾으로 정의한다. 즉, 북한의 인간개조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인민에게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사상학습으로 주입하여 북한이 원하는 인간형으로 주조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인간개조’에 관해 김정일은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²⁰⁾으로 정의하였다. 북한은 ‘인간개조’를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주체로 자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북한에서는 ‘인간해방’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역사적 위업”²¹⁾으로 정의한다. 북한의 인간해방은 개인의 철학적 해방보다는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자들로 부터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북한은 인간해방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견해’의 철학적 사유로부터 출발하여 ‘인간문제’에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에서 인간의 지위, 역할, 운명, 본질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개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민대중의 힘을 길러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참다운 인간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간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2) 초기 북한 인간형의 특징

초기 북한의 인간형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국가설립 비전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19) 철학사전, 532면.

2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7,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1) 철학사전, 539면.

22) 임한필, “주체사상의 ‘인간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5, 26면.

증오 위에서 제시되었다. 북한의 인간형 제시는 1958년도 한국전쟁 복구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완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개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산업화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958년 김일성은 전국 시·군 당위원회 선동원들 강습회에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연설하면서 근로대중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서 인민의 낡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의 잔재를 뿌리 채 뽑을 것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 전개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등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양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²³⁾

강덕서는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인간형의 특징으로 당과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와 혁명적 동지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배려 등을 강조하였다.²⁴⁾

북한의 초기 공산주의 인간형은 노동자에게 초점을 두고 근로인민에게 게으름이라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북한은 이러한 노동자의 습관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강덕서는 조선이 부르주아 혁명을 겪지 않고 일제 식민지배 속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일하기 싫어하는 나쁜 습관은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다는 지주,자본가,장사를 하면서 남을 착취하며 살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계급적 관점에서 이를 인식하였다.²⁵⁾

북한의 초기 공산주의 인간형은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정신강조뿐만 아니라 철저한 반미주의의 의식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1958년 한국전쟁에서 발생하였던 신천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신천박물관을 세우고 이후 반미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반미주의의 의식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²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대중을 이끌며 사회주의 혁명 건설을 완수하려는 군중노선 방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중노선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체제수립과 동시에 군중노선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혁명적 군중노선’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군중 속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한

23)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 저작선집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57~258면.

24)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50~87면.

25) 강덕서, 위의 논문, 12면.

26) 한성훈, “전쟁과 인민: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파주:돌베개, 2012, 225면.

것은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 부터였다.²⁷⁾

북한 정치사전에서는 군중노선을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노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²⁸⁾ 군중노선의 기본요구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광범위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것,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고 있다.²⁹⁾

북한의 군중노선은 정치사상과 생산경쟁 운동이 결합된 대중운동 형태로 추진되었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대중운동을 “당의 일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으로 대중을 추동하도록 벌리는 사회적 운동”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집단적 혁신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즉, 북한은 대중운동 방식의 군중노선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 건설을 실현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혁명적 군중노선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성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기풍, 인민적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북한은 사상개조와 인간개조를 통해서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주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민의 사상과 인간개조를 통한 변화가 곧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완수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공산주의 인간형의 제시는 사회주의국가인 소련과 중국에서도 나타난 사회주의국가의 특질이다. 다만 소련, 중국과 북한 인간형의 차이점은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서 북한식 인간형과 최고지도자인 수령과의 관계를 일체화 시켜왔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제시하는 인간형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명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주의 혁명건설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중노선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중노선을 통해서 대중을 사회주의 교양개조하여 지도자에 충성하고 혁명적 기풍을 마련하여 북한식 인간형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27) 김일성, “토지개혁의 종결과 금후과업: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6.4.10),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49면.

28) 정치사전, 114면.

29) 정치사전, 114면.

3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 2017, 496면, 1282면.

Ⅲ. 북한 뇌물경제 현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배경

1. 북한의 뇌물경제와 부패 실태

1) 북한 뇌물 경제 등장배경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기본적인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개방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 직면하였던 북한 경제의 향방이 주목되던 가운데 단행한 소극적인 개방정책(1992년~1995년)은 결국 실패했다. 경제난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 현상이 확산되었다. 오늘날까지 북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자원, 기술력과 인력자원 등 경제 제반에 걸친 부족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³¹⁾

이어 냉전과 이념 대립의 상징이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연방(구소련)의 해체로 동유럽 공산주의 나라들이 붕괴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반냉전의 종식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무역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기록적인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결국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맞으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효율성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추동력 약화, 국가 간 경제협력 체계를 상실하면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³²⁾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시장화 확산으로 인한 이른바 비사회주의 행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시장을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위한 자본주의 요소들이 늘어났으며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일탈 및 부패 행위들이 북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겪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사회구조 시스템이 계획경제가 다르고 민생경제가 다르고 간부들도 일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부정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불법을 자행하지만 내가 국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 뇌물 고이는 것을 합리화해 버린다. 또한 국가에서 쌀을 안 주는데 내가 결국은 먹고 살아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미화해 버린다”고 한다.³³⁾ 즉, 생존이 달린 ‘생계형 일탈’의 부패가 일상화되어 이에 대한 도

31) 정유석, “북한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 : ‘고난의 행군’시기 일탈과 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987년의 제3차 경제개발 7개년(1987~93)기간 중 소련의 해체는 북한에게 있어 무역 파트너와 호혜적 무역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무엇보다도 소련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급격히 감축되었다.

32) 정유석, 앞의 논문.

33)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통일연구원, 2012, 62면.

덕적 판단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결국 북한의 경제체계가 무너지고 그중에서도 공식 배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은 살기 위해 장마당에 적극 나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상인들과 관리자 사이에 일탈행위가 확산 되었으며, 이를 당국이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뇌물경제’가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장마당의 매대와 가판대를 얻거나 형식적인 단속을 피해가려면 해당 관리자에게 뇌물 제공은 일상화가 되었으며 특히 거래 물건은 중국산 밀수품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제공해야 했다. 또한, 북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도 부패와 뇌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의 대부분을 뇌물로 채우고 있으며, 국가도 인건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부패를 제지하지 못하고 묵인하게 되는 악순환의 부패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즉, 북한은 경제난 가운데 행정체계가 붕괴되면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자생적인 형태의 부패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북한사회의 부패 유형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은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패는 대부분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뇌물 경제’이다. 경제난 속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시장화로 인하여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무분별하게 사회 전반에 유입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 공무원계자, 브로커, 돈주 등 신흥 세력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무너진 계획경제를 대체할 마땅한 북한 당국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식량과 생산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겹치면서 부패의 구조가 심화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지정해주는 직장(대부분 공장과 농장) 보다는 사실상 시장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생활한다. 제한된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리 임대를 두고 매수자와 관리자 사이에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간다. 이렇게 장마당에서 시작된 뇌물과 부패 경제는 무역업, 외화벌이 등으로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밀거래가 늘어나고 해외 자금 유통의 승인과정에서 보위부의 간부들이 무역기관을 감시하면서 상시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고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묵인해주고 뒤를 돌봐준다. 또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해외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한 뇌물도 성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부패의 핵심에는 당간부들이 있다. 군대와 공장, 기업소 등 모든 공식적인 기관에는 당의 관료들이 나와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당에 입당을 해야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당간부들에게 뇌물은 사실상 공식적인 수입이다. 또한 군대와 관련한 뇌물도 만연해있다. 북한의 군대는 배식 사정이 좋지 않아 군인들은 영양실조를 비롯해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돈이 있는 집의 부모는 자식의 군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다. 뇌물을 주고 보위사령부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자대를 배치 받는다. 큰돈의 뇌물 준비가 어려운 일반 주민들도 식량 공급이 그나마 원활한 공군이나 해군에 자식들을 보내기 위하여 당간부들에게 청탁을 한다.

대학 입학과 취업에도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다. 북한에서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상당액의 뇌물을 당간부와 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상납을 해야 한다. 심지어 교화소에서도 뇌물이 공공연히 성행한다. 교화소에서 본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뇌물 주고 약식의 처분 받고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의 투기 목적의 뇌물도 등장했다. 돈주들은 건설 부지를 승인받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에 대한 분양권을 판매한다. 이러한 승인을 담당하는 당관리들과 업자들 사이에 엄청난 액수의 뇌물이 오간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돈주가 보유하고 있는 큰돈이 국가로 다시 회수되어 정치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 도자기나 불상 등의 유물, 그리고 각종 마약의 불법적인 해외 밀반출에도 담당 관리자들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어 북한에서 뇌물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 뇌물의 일부가 국가에 유입되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 수수료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일탈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김정은 반부패 정책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1)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

김정은 정권 초기 5년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경제 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과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 정면돌파전(2019)에 이어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2020)로 본격적인 본인만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김정은 시대에 비중 있게 추진된 통치 이데올로기에는 ‘부패 척결’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하겠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뇌물 경제’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행정, 경제 정책, 법제도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사회 전반의 개선과 의식 개혁을 통해서 낙후된 경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부패와 뇌물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에서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사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뇌물’이 1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부정부패 상황이 아주 심각하여, 공권력이 과잉 행사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행사되더라도 전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국제 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뇌물과 관련한 위험 지수를 발표한 보고서(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에서 뇌물로 인한 북한 사회의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으로 조사되었다. ‘뇌물 위험도’는 행정 절차와 공직의 투명성을 기초로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 정부와의 상호 교감, 뇌물 방지 수단 등이 반영된다.

[그림 1] 북한의 부패지수



THE TRACE 2020 BRIBERY RISK MATRIX

COUNTRY RISK SCORES TABLE

RANK	COUNTRY	TOTAL RISK SCORE	DOMAIN 1: OPPORTUNITY				DOMAIN 2: DETERRENCE			DOMAIN 3: TRANSPARENCY			DOMAIN 4: OVERSIGHT		
			OVERALL OPPORTUNITY RISK	INTERACTION	EXPECTATION	LEVERAGE	OVERALL DETERRENCE RISK	DISUASION	ENFORCEMENT	OVERALL TRANSPARENCY RISK	PROCESSES	INTERESTS	OVERALL OVERSIGHT RISK	FREE PRESS	CIVIL SOCIETY
181	Republic of the Congo (Brazzaville)	72	74	48	81	76	78	78	70	84	78	82	56	53	58
182	Laos	73	68	43	82	65	62	55	64	80	76	78	83	88	79
183	Burundi	74	63	37	84	56	78	72	76	87	91	75	77	73	81
184	Chad	75	73	48	81	75	80	71	80	92	89	86	60	57	63
185	Syria	76	73	46	82	73	90	94	76	66	76	48	83	85	82
186	Cambodia	80	87	53	98	87	81	77	77	78	73	76	67	67	68
187	Somalia	80	79	39	81	99	88	79	87	98	90	98	58	56	61
188	Equatorial Guinea	80	73	57	80	64	89	85	84	93	93	84	74	78	71
189	Yemen	80	75	34	100	73	81	71	82	100	92	100	71	72	70
190	Eritrea	81	65	45	47	91	89	81	87	97	100	83	90	92	89
191	Venezuela	82	87	64	74	100	77	43	100	92	86	90	65	63	68
192	South Sudan	85	79	66	93	57	90	86	84	99	100	88	77	79	76
193	Turkmenistan	86	100	91	81	NA	73	58	81	68	77	51	89	95	84
194	North Korea	93	98	100	69	NA	100	99	89	73	91	45	100	100	100

자료 : 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

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은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으며, 뇌물을 거절하지도 않고, 뇌물 방지를 위한 활동이 전무하여 행정부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시민 사회로부터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을 ‘뇌물 위험이 상당히 높으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결론지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2020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북한

의 국가청렴도는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공공연한 ‘뇌물 경제’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김정은은 공개적인 경고와 함께 과거부터 수차례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5년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부정부패를 3대 악습의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은은 “간부들이 주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부유해져서는 안되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한 표현으로 경고하였다. 이어 2015년 개정된 형법에는 뇌물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렸으며,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재차 경고하였다. 제8차 당대회에서도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 온갖 범죄 행위를 건결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이를 전담하는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미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뇌물’과 ‘비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이 같은 태도는 책임 간부들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북한의 내부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하는데 인민들을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뇌물’이나 ‘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일관된 ‘부패 척결’ 정책의 추진목표는 공직 관료들의 기강을 다잡아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 김정은의 반부패 정책

2021년 8차 당대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당규율 강화’였다.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안에서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을 뿌리 뽑자면 규율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기강을 세워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당규율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여러차례 당규율 강화를 강조하면서 당규약 개정을 발표하였다. 규율 감독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고 당 재정 규율에 관한 결정서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당의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중앙검사위원회로 집중하여 규율 및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특히 중앙검사위원회에서 당규율에 관한 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부정부패와 직권남용, 관료주의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규율 관련 집행을 하는 규율조사부와 법 관련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신설되어 이원화된 규율 감독 체계를 정비하였다.

2020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당 중앙위 일부 간부들 속에서 극

도로 관료화된 현상, 행세식 행동이 나타나고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당중앙위 간부들과 당 간부 양성기관의 일꾼들에게 비당적 행위, 부정부패 행위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 부담 행위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은은 당의 관리들에게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해당 건으로 리만건, 박태덕 등 주요 간부를 해임하였다. 이어 같은해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에서 발생한 입시비리와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을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2020년 김정은의 주재로 진행된 노동당 제7기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의대 간부가 비리 행위로 직위 해제된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 위원회와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 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되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³⁴⁾

2021년 8월 18일 노동신문의 기사에서도 ‘부정부패’를 세도, 관료주의와 더불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노동당이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또한 간부들이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이상으로 부유해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리사욕 추구를 경고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장마당이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경제 요소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당간부들의 부정이 늘어나면서 일반 주민들의 동요가 심각하게 우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부정부패, 비리, 뇌물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들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경제발전’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히 당간부의 부패는 일반 주민들이 충성심을 저하시키고 경제 발전의 동력이 상실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정면돌파전’도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이 있다. 2020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위해 모든 경제 관련 권력을 ‘내각’에 집중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당과 군 산하의 기관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지자, 내각으로 경제 권한을 분산시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대에는 암묵적으로 일부 특권 계층과 기관 관리자의 부패 문제를 묵인하였다면,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워 ‘애민정치’, ‘상징정치’, ‘부패척결’이라는 본인만의 리더십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조선중앙TV, 2020.11.4.

IV.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와 부패 억제

최근 북한은 개인에게는 가정 중시의 도덕관을 강조하고, 당간부에게는 인민중시, 이민위천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인민에게는 도덕적 기풍에 초점을 둔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고, 당간부에게는 인민중시를 강조하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도자, 당, 일군, 인민 등 사회구성원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노동신문에 가족 중시의 도덕관, 인민중시, 이민위천 사상, 일심단결 등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인간형을 활용해서 부패 억제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인민대중에게는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부패 문제를 억제하려고 하며, 당간부에게는 부패를 통한 이익획득이 아닌 생산성 향상 및 성과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부패 억제를 위해서 인민과 당간부에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부패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1. 인민대중에게 도덕적 인간형 제시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김정은 시대에도 아버지 수령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인민들에게 가정 중시를 강조하면서 최고령도자인 김정은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3일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방문을 ‘부모없는 아이들이 많고 많아도 철부지어린이들과 나라의 최고령도자가 한데 어울려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의 화폭’으로 묘사하면서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나라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그들을 위해 돌우에도 꽃을 피울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따뜻한 축복’으로 김정은을 따뜻하게 그려냈다.³⁵⁾ 이러한 모습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하나의 가족공동체임을 부각하여 인민들에게 아버지 수령을 따르는 자녀와 같은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비유하고 구성원들을 친형제와 식솔로 설명한다. 2021년 7월 6일 노동신문에서는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단주의적 정신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을 사회주의대가정

35) 노동신문 ‘새해의 첫 진군길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따뜻한 축복, 2021.1.3.

의 어버이로 ‘우리의 생활은 그토록 아름답고 그 품에서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한식솔로 사는 것’으로 그려내면서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³⁶⁾

북한이 사회주의대가족 개념과 김정은을 어버이로 그리는 것은 응당한 도리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인민이 김정은의 지도력을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021년 7월 21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응당한 도리인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전사들이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마땅한 도덕의리’³⁷⁾라고 말하면서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주었다고 선전한다.

북한이 개인에게 심어주려는 인간상은 결국 국가적 과제인 혁명임무의 관철로 연결되고 있다. 2021년 7월 21일 노동신문에서는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도덕화된 충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누구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며 당이 준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³⁸⁾고 설명하였다. 즉, 북한에서 개인의 도덕화된 충실성의 검증은 곧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혁명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대가족제의 논리는 인간의 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정치적생명은 수령에게서 나온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생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지만 혁명가의 삶은 수령에게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령의 사상과 정도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충성으로 받드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것이 혁명가의 인생관이며 그 길에서만 빛나는것이 혁명가’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고자 한다.³⁹⁾

이러한 충성심은 늘 당의 결정사항의 관철의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8월 10일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뼈속깊이 체득하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⁴⁰⁾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생활문화의 적극 창조’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북한식 생활양식과 도덕기풍에 관한 의식을 높이려 한다. 2021년 3월 7일 노동신문에서는 북한식 생활문화가 제일임을 강조하며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집단주의적생활기풍

36) 노동신문,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친형제, 한식솔-신천군의 한 영예군인녀성이 잃었던 모습을 되찾고 새 가정을 이룬 이야기’, 2021.7.13, 5면.

37) 노동신문, ‘도덕화된 충실성’ 2021.7.21, 1면.

38) 노동신문, ‘도덕화된 충실성’ 2021.7.21, 1면.

39) 노동신문, ‘신념화된 충실성은 혁명가의 생명’ 2021.8.10, 2면.

40) 노동신문, ‘신념화된 충실성은 혁명가의 생명’ 2021.8.10, 2면.

과 도덕기풍을 강조하는데 이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체제이완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7일 노동신문에서는 ‘우리는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⁴¹⁾할 것을 주문하며 북한식 생활양식과 도덕적 기풍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도덕적품성에서도 ‘의리’를 강조하면서 당과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것을 선전한다. 2021년 7월 6일 노동신문에서는 ‘당과 국가의 은덕과 혜택에 실천으로 보답하는 것은 공민의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의리’임을 강조하면서 “의리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잊지 않고 기어이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을 말합니다.”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응당한 도리의 논리인 도덕적기풍을 부각하면서 당과 국가에 받은 혜택을 보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⁴²⁾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버이로 불리는 수령 중심의 대가족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어버이 수령의 뜻을 결사옹위 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완수할 수 있고 북한 대가족 국가의 수립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민들에게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교양의 강조는 북한 인민들의 도덕적 의식을 자극하여 수령과 당의 충성심을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개인의 부패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2. 당 일군들에게 헌신적 인간형 제시

북한은 김정은을 최고 정점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국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인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국가통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김정은을 모델로 삼고 있는 북한사회는 당 간부와 일군들에게도 김정은을 따라 배워 인민대중을 이끌어 갈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 운영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⁴³⁾로 묘사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41) 노동신문, ‘우리식 생활문화가 제일’ 2021.3.7, 5면.

42) 노동신문,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2021.7.6, 4면.

43) 노동신문,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꼭 차있었습니다. 김정은 : 인민의

기울이는 모습을 부각 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이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 운영은 지도자의 열렬한 사랑과 헌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 일군들에게는 인민중시와 이민위전을 강조하면서 헌신적인 봉사로 인민들을 지도할 것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위전의 모델로 김정은을 제시하면서 최고령도자를 당 간부들에게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2021년 1월 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의 “우리 당은 이민위전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김정은을 귀감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⁴⁴⁾

이러한 헌신적이고 인민중심의 봉사정신은 일군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21년 1월 24일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일군들이 인민의 충족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일군다운 정치사상적품모와 실무적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강조되기도 하였다.⁴⁵⁾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이민위전,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기본정신으로 제시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당과 일군들의 핵심사상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기본정신이 령도사상의 핵심이라고 주창하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의 구호가 제시되었다. 2021년 1월 28일 노동신문에서는 제8차 당대회의 기본정신을 이민위전, 일심단결, 자력갱생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⁶⁾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제시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하면서 이를 주체사상과 연결지어 설명하려고 한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대중의 정체성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아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증진시킨 것에 의의를 부여한다. 김정은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주체세상을 연결 짓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은을 연결지어 현지도자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⁴⁷⁾

북한의 당간부에게 요구하는 헌신적인 인간형 제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인민을 우선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인간형은 당간부의 도덕적 품성을 내면화하여 권력 엘리트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의 모습' 2021.2.5, 2면.

44) 노동신문, '언제나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2021.1.4, 2면.

45) 노동신문, '투철한 당적자각, 책임적인 일본세, 높은 실력, - 이것이 일군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다', 2021.9.21, 1면.

46) 노동신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백승을 떨치시는 위대한 우리 령도자: 력사의 분수령에서 더 높이 올린 이민위전의 선언', 2021.1.28, 1면.

47) 노동신문, '이민위전의 숭고한 뜻 어린 고귀한 부름들', 2021.2.15, 1면.

3. 북한의 집단주의 강조와 부패 억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강조하면서 당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군청년햇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대운동,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26호 모범기 대창조운동과 좋은 일하기운동, 녀맹돌격대활동 등의 대중운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주의의 강조는 김정은 체제의 통치권 강화 이외에도 개인의 부패 문제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다.

북한은 천리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천리마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집단주의적 인간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상혁명, 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하여 천리마작업반 단위를 이끄는 천리마기수를 육성해나가는 리더십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천리마기수는 북한이 제시한 공산주의 인간유형이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러한 공산주의 인간유형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천리마기수란 처음으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으킨 진웅원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진웅원과 같은 천리마기수들은 소비에트의 스타하노프나 중국의 레이펑과는 다른 유형으로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갖춘 리더형 인간이며, 우선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성과를 올려야 분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천리마기수를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여 혁명 기풍을 강화하고 성과를 배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북한은 천리마기수의 역할이 천리마작업반의 반장으로서 역할모델을 하고 적절한 분공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화와 체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화의 기조 가운데 북한의 주민들은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모두가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이 확립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집단주의와 조직생활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소년단, 사로청과 같은 단체활동을 전 인민과 청년학생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단체활동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천리마운동의 구호를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과 같은 조직사회주의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북한식 사회주의 운용원리는 1978년 12월 중국의 개혁개방과 1980년대 중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맞물려 김일성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런 방향성은 유지되어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것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8일자 정론에서 나온 “사회주의라는 크나큰 우리 집”과 같은 표현에도 반영된 것처럼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기조가 강조되고 있다.

천리마운동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정론은 2020년 8월 10일자 노동신문에서도 “인민의 심부름꾼”에서 천리마운동을 호출하며 인민이냐, 나 자신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멸사복무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2020년 10월 5일자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만세!”라는 노동신문 정론에서는 천리마조선의 신화와 천리마의 주인이 인민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5일자 노동신문 정론에서 천리마의 주인을 인민으로 형상화한 것은 천리마 기수의 인간형을 내세운 북한에서 노동자라면 그 누구라도 관리자가 되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멸사복무의 종사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결국 집단적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원리이고 개별적 주체인 ‘인민’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원리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친인민, 친현실 기조도 개별 인민들의 삶을 중시하는 바가 뚜렷하나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천리마기수 등 당 간부 중심의 리더가 선봉장이 되어 집합적인 인민대중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현재 북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다. 2022년 2월의 당 전원회의, 3월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의 김정은이 당간부들을 향한 지적과 질책, 쇄신을 강조한 것도 당간부와 인민들에게 새로운 천리마기수의 등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서 군중을 동원하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운동을 집단적혁신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⁴⁸⁾ 김정은 시대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인간개조와 사상개조사업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해서 “당의 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만장약된 광범한 대중의 단합된 힘은 집단의

48) 김광혁, ‘당의 사상으로 만장약된 집단의 단결의 위력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발양의 결정적 요인’, 사회정치학연구논문, 제3호, 2017.

교양과 방조로 인간개조를 다그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위력한 무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북한이 원하는 붉은기쟁취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적 사상개조를 통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다지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일심단결의 집단의 정신력을 발현하여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당의 충성심을 고양시켜 체제안정을 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의 집단주의 강조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사회생명체인 북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개인적 일탈인 부패 문제를 억제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개인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집단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V. 결론

2011년 12월, 부친인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들인 김정은은 충분한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한 채 권력을 이양 받게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계속되어온 김정은의 다소 공격적인 행보는 기존의 관행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이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주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북한은 김정은이 선포한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을 위하여 신인간형을 제시함으로써 구 지배계급의 이탈을 막고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유지를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인지배체제 국가인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구조화된 부패문제이다. 북한은 부패 문제를 억제하고자 강압적 방식의 처벌과 유화적 방식의 도덕성품 함양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의 인간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 억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구조화된 부패에 대해서 인민들의 일상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민들의 내면으로부터 부패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김정은은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태양절을 앞두고 조선중앙TV의 간판인 리춘희 아나운서에게 보통강 인근에 새로 지은 초호화 주택을 선물하였다. 50년 넘게 북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선전선동의 최전선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방송인의 공적을 치하하

49) 김광혁, 위의 논문.

였다. 이는 사회 지도층에게 복종과 헌신을 강조하며 이를 모범적으로 달성한 간부에게 포상을 내리는 구소련의 스타하노프식 인간형의 전형적인 모델로 보인다. 한편 일반 인민대중의 경우에는 중국의 레이펑식 인간형과 같이 도덕성을 강조하면 부패와 일탈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김정은은 당간부 등의 엘리트 집단에게 지도층의 헌신을 강요하고 이를 치하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에 사회주의 체제의 모범을 되어 일탈을 방지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민과 당간부에게 제시 되는 인간형의 차이는 북한 부패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부패는 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해 등장한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패는 정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는데 북한 지배층에서도 부패문제에 관여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부패와 연루된 북한 권력층은 점차 부패문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권력층과 인민대중이 연결된 부패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간부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을 인민대중에게는 도덕적 성품 함양을 강조하면서 유화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의 이원적 형태의 인간형 제시는 이권 획득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북한 권력층에게 인센티브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패에서 획득하게 되는 이익을 대체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반면 인민대중에게는 일상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연한 부패를 억제 하려는 이원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인지배국가인 북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권력층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충성심을 위협하는 부패 문제를 억제하고자 인간형 제시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만연해진 부패문제는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권력층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단순한 억제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부패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에 대한 불신에 있다. 북한의 부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부패에 동참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 북한 경제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제 구조의 전환 없이 단순히 부패문제를 억제하는 강압적, 유화적 방식의 접근은 일시적인 조치로 그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참고문헌

- 고유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 세계정치경제, 제3호, 1996
-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 김정옥,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1호, 2018
- 김광혁, '당의 사상으로 만장약된 집단의 단결의 위력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발양의 결정적 요인', 사회정치학연구논문, 제3호, 2017
- 김병연,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인간, 시장경제연구, vol.33, no.2, 2004
-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연구 -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 변질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no.53, 2014
-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 저작선집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7,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16
-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북한학보, vol.2, 1978
-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국제협력의 모색, 통일연구원, 2012
- 이문청·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4호, 2013
- 이복수, 북한 <천리마운동>의 사회학적 함의, 아세아연구, 제20권 제2호, 1977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임한필, 주체사상의 '인간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유석, 북한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 : '고난의 행군' 시기 일탈과 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성장,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김정은의 위상 변화 평가, 세종논평, 2021
-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서양사론, no.100, 2009
- 한성훈, 전쟁과 인민: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2
- 홍제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
- И. В. Невзорова, ВЕСТНИК ОРЕН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19, no.4 (32)
- Гридина Я.В., Кравцова Е.С. Стахан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СССР глазами очевидцев // Innova. - 2018. - No. 2 (12) - С
- 朱小娟, 從雷鋒精神的弘揚談集體主義價值觀的重塑. 北京教育 (德育), 2016
- 노동신문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 평양, 2017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김정일동지 혁명사상에 대하여, 평양, 2010

조선중앙TV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투고일자 : 2022. 06. 08

수정일자 : 2022. 06. 28

게재일자 : 2022. 06. 30

<국문초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간형과 부패 억제에 관한 연구

백인주 · 정유석 · 정대진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 유지에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도자의 권력유지에 가장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 바로 구조화된 북한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행정시스템과 사회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인민과 당간부 가릴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북한 인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북한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법질서를 위배하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부패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처벌을 통한 강압적 방식과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한 유화적 방식을 동시에 하고 있다. 북한의 강압적 방식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반면 유화적 방식으로는 인민 내면의 성품을 변화시켜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인간형에 주목하여 부패문제의 접근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에서 특이한 점은 인민대중과 당간부에게 제시되는 인간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인민에게는 중국 레이펑식 인간형과 같이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부패문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당간부에게는 헌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련 스탈하노프식 인간형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원적 형태의 인간형 제시는 이권 획득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북한 권력층에게 인센티브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패에서 획득하게 되는 이익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성과를 통한 보상제공이라는 루트를 마련하여 부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민대중에게는 일상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연한 부패

를 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북한의 뇌물경제의 현황과 부패정도를 분석하고 공산주의 인간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가 북한 부패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북한 부패, 북한 부패 억제, 북한 인간형, 김정은시대 인간형

